

안녕하세요 멘토치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졸리니까 짧은 글하나쓸게요..

이전에 사탐글 올렸더니 반응이 역시 좋더라구요.. 많은분들이 관심가져주시구요.

그만큼 학생들이 고민이 많다는건데...

제2외국어는 응시하지않으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제2외국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제2외국어, 어디쓸까?



우선, 제2외국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에서 필수지정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래서 서울대갈꺼 아니니까 제2외국어 안한다는분들 많을꺼라는 생각들어요... 하지만 필요성을 다음장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서울대는 13수능까지는 제2외국어 백분위활용해서 점수를 매겼지만 14수능부터 신설과목부작용을 막기위해 2등급이상은 모두 만점처리하게되었습니다. 서울대 노리시는분들은 부담이 한결 줄었네요.

한편, 서울대가 아닌 대학에서는 사회탐구과목을 대체하여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10대대학(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에서는 모두 대체 가능할것입니다. 그 외 대학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제가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를 추천하는이유가 있습니다!!

2. 제2외국어, 왜 필요할까?



14수능부터는 사회탐구 응시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듭니다..

그치만 사탐을 1과목만 반영하기엔 아쉬우니까 대부분대학이 2과목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과목 모두 수능때 빼놓안할 자신있으신가요?

13수능까지는 3과목응시 2과목반영이라서 그냥 사탐3과목공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예요

사탐은 '실수'는 적은편이긴하지만 의외로 수능때 신유형이나 여러 신기한 문제들때문에 뒤통수맞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등급컷이 48~50에서 형성되어 하나만틀려도 2등급이 되버리는, 이런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쳐보면 아시겠지만 1등급컷높으면 진짜짜증나요...이렇게되면 솔직히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초중학생수준 문제가 아닌이상 어떤문제든 안틀릴 자신이 있는사람은 없죠...한문제때문에 등급떨어지고 —;; 13수능언어—;;)

이렇게 사탐하나를 망쳐버렸을때, 대학이 한단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탐한과목백분위2~3이 연수의 1점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고대기준-사탐반영바율 약 15%. 물론 이건 사탐난이도라던가, 반영비율, 보정먹이는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사탐비율 15%선에서요..)

예를 들어, 탐구 백분위를 한과목90, 한과목100을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학생은 두과목모두 100을 받은 학생에 비해 연수의 약 3~4점정도 손해보게됩니다. 연수외3~4점이면 대학라인이 하나 바뀌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사탐이 하나 망했을때, 보험용으로 제2외국어를 강추합니다.

중요한 시험일 수록 보호막을 많이많이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대학에가서 교양과목으로 제2외국어들을때 편하다 뭐 이런소리는 안할게요....대학가는게 중요하지 대학가고나서는 나중문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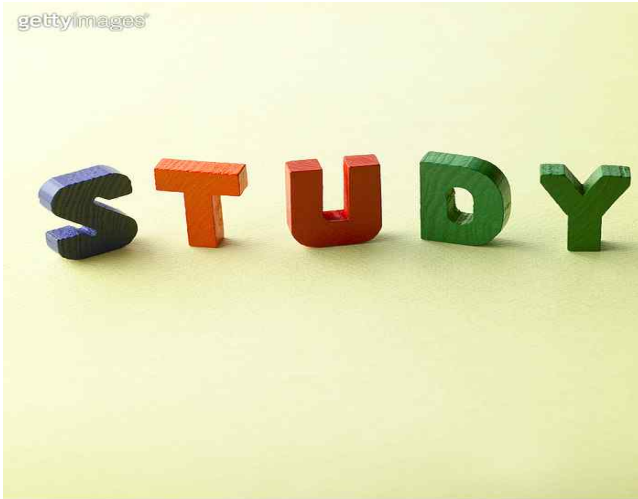
3. 제2외국어, 어떤과목을 선택해야할까?



외고에서 제2외국어를 공부하신분들이라면 본인이 배웠던 과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2외국어를 공부해보지않은 분이면 아랍어나 이번에 생기는 베트남어 추천드립니다.
저 두과목의 장점은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에비해 등급컷이 낮게형성되요.
다른과목들은 사실 하나틀리면 2등급,3등급될 가능성이 큼니다. 허수가 별로없어서요..
아랍어같은경우 이미 레드오션이긴합니다. 12수능,13수능 모두 1등급컷이 48이였습니다.
2등급컷도 30점근처이던게 아마 지금은 40점 근처로왔을거예요... 그렇다해도 2등급컷부턴
다른사탐보단 낮은수준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아랍어도 좀 더 어려워졌을겁니다. 근데사실 허수
빨로버티는거라 ○○
어짜피 어려워져도 상대평가잖아요?
베트남어는 신설과목이라서 아랍어보다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어의 기적같은 등급컷이 이미많이 알려졌기때문에... 공부안하고 등급따볼라고 응시하는학
생도 있을거고..

결국, 허수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냐에따라서 두 과목의 운명이 결정되겠습니다. 전통의 강호
냐... 신흥 무림고수냐.. 이거죠
6월,9월모의평가로 허수가 어느쪽이 더 많은지 동향을 살피는게 좋습니다. (응시자많은쪽이
허수가가능성높음)
다만.. 솔직히 6월,9월모의고사로도 알수 없는게 13학년도 아랍어 9평때 응시자7천이던게 수
능때 3만으로 늘어날만큼 허수가 엄청난과목입니다.
이 인원이 수능때 어디로 움직이냐는 사실 9월로도 알 수 없긴하지만... 참고자료는 그것뿐입
니다.
크냥 둘중에 맘에드는거 하시는게(...) 다만 베트남어로 쯤더 몰릴거같기도.....근데 그냥 한
낫 대학새내기인 저의 감일뿐

4. 제2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뭐 사실 사탐/제2외국어가 거창한 공부법이 있는것은 아니라서 짧게쓰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외우세요

저는 아랍어공부했었는데요.. 현역,재수 2년간의 정시에서 모두 사탐(근현대사...ㅏㅏ)을 대체 해서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한거도 아니였습니다..오히려 근현대사보다 공부 적게했는데 점수는 더 잘나오더라구요.

이정도로 제2외국어는 큰 공부량을 요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많아봐야 다른 사탐과목수준..

저같은경우는 현역때 여름방학부터 공부해서 1등급, 재수때 더공부해서 만점맞았어요..

여러분들도 빠르면 다른사탐이랑 같이 겨울방학에, 늦으면 여름방학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학원에 특강있길래 그걸로 들긴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원이 없을것 이므로,

인강을 이용하세요. 개념강의는 꼭 들으시구요

사회탐구과목들과는 달리 EBS꼭보셔야합니다. EBS단어,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시험에 내버려요...

작년아랍어 9평 1등급컷이41이였나 엄청어려웠는데 이게 EBS때문인것도 컸습니다.

EBS의 단어들은 모두 외워주세요... EBS에 나오는 새로운단어들은 자료찾아보시면 많습니다~

=====

오늘은 그냥 짧은주제를 썼구요... 아마 다음에는 3월모의고사에 대한 것이나 본격적으로 과목별 공부법 쓸거같아요~

추천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들 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